

서정석(사법연수원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서정석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8월 26일
5. 구술장소: 대구 수성구 서정석법률사무소
6. 구술분량: 07분 1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사법연수원 시절 교육과정과 동기관계

면담자 : 대통령님하고는 십칠(17)회 사법시험 동기이신 거고, 그때 기사를 보니까 합격자 발표가 칠십오(75)년 삼(3)월 이십육(26)일날 났더라구요. 그러면 대통령님하고는 언제 처음 만나신건가요?¹⁾

구술자 : 연수원 입소해서 만났습니다.

면담자 : 입소가 몇 월이었습니까?

구술자 : 입소가 그때가 몇 월 달이고? 구(9)월 달인가, 그때지 싶은데.

면담자 : 천구백칠십오(1975)년?

구술자 : 예, 칠십오(75)년 때. 그때 입소해서 삼(3)월 달 합격하고 입소해서 한 구(9)월쯤 됐지 싶은데 그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마침 만나니까,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 이제 노 대통령하고 저하고 저가 십삼(13)번이고 노 대통령이 십사(14)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나다보니 가까이서 만나게 돼서 친하게, 더 친하게 됐죠.

면담자 : 옆 자립니까, 앞뒤 자립니까?

구술자 : 옆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부터 일(1)번부터 이렇게 주욱 일(1), 이(2), 삼(3), 사(4) 가로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가 이제 십이(12), 십삼(13)번이니까²⁾ 앞에 한 아홉 명이 앉았나? 그러니까 둘째 줄에 앉았죠. 둘째 줄에 이제 내 옆에 이 쪽 십이(12)번은 안상수, 지금 국회의원 하는 안상수 의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십삼(13)번이고 노무현이 십사(14)번이고 요렇게 앉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끼리 또 고려다보

1) 노무현 대통령과 구술자는 제17회 사법시험 동기이자 제7기 사법연수원 동기임. 1975년 3월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합격자들은 그해 9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사법연수원은 당시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소문에 있었다.

2) 구술자의 앞뒤 발언을 보면 13번, 14번이 맞음.

니까 나이가 이제 노 대통령하고 저하고 안상수 의원하고는 사륙(46)년생 동갑이 돼가지고 더, 나이가 같고 이래서 바로 거의 허교(許交)하고 말 놓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연수원하고 달리 육십 명밖에 안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형님, 동생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저 뒤의 후배들은 바로 “형님, 형님” 이라고 저희들도 앞에 나이 많은 사람을 그래 형님으로 호칭하고 이럴 정도로 참 가깝게 모두 다 어울리기 쉽게 돼있었죠. 나이들도 그러니까.

면담자 : 첫 인상 같은 거 기억나세요?

구술자 : 아이, 쯤 기억나지요. 근데 이제 다 그래도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노 대통령은) 첫인상으로 봐서도 그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는데 약간 투박하게 촌사람 스타일이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지. 그, 참 지방대학 나와도 들어오기 어려운 데 그것도 독학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카니까는 우리로서는 놀라웠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때 첫인상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³⁾ 더 생생한 그건데 지금 더듬어서 하는 이야기면 크게 느낌이, 그런 느낌 정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자주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연수원 동기들이라 해도, 가까이 나이 또래에 있어도 깊이 안사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노 대통령하고 우리 몇몇 친구들은 연수원에서만 서로 형님, 동생 하는 정도가 아니고 퇴근하면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놀 정도로 그렇게 자주 가까워졌으니까. 좌우간 이래 가까이 지내면서도 오랫동안 만난 사람매로(사람처럼) 서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없고 없이 그래 됐는 거 같아요,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뒤에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 그때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연수원 친구들로서 만날 때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잘 어울리고 끝까지 어울리게 됐지. 그때 분위기만 해도 지금 연수원 분위기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검찰이나 법원에 임관은 다 됐으니까. 꼴찌를 해도 연수원 성적이, 수료 성적이 꼴찌 돼도 다 됐으니까 성적에 그렇게 연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이 서로 좀 부족한 과제물은 가르쳐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였죠. 그 대신 분위기가 법조인으로서 참 여러 가지 포용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3) 구술면담을 말함.

자는 거지, 성적을 잘 따자 그런 분위기인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막 경쟁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그때 몇몇이는 자주 어울리면서 연수원에서 어울리는 거 외에 개별적으로 또 나가서도 자주 어울리고 아까 카뎀이(애기했듯이) 그렇게 어울렸어요, 노 대통령하고. 자주 어울리는 우리들이 노 대통령하고 나하고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인제 형뻘이 됐지요. 그래서 그 후배들하고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놀고, 오히려 그때는 연수원에서도 공부했다는 표현보다 우리 잘 놀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모두 지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면담자 : 어울리고 놀 때는 어땠나요?

구술자 : 아, 잘 놀았죠. 술도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보니까 술이 쪼끔, 옛날만큼 안마시던데. 그래도 우리하고 많이 어울려서는 그래도 취할 정도로 마시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저도 술이 많이 세고 이런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분위기 따라서 마시고, 남이 마실 만큼 마시고 그 다음날 고생을 하더라도 이래 마시고 했는데. 노 대통령도 그때 그랬습니다. 같이 어울려가 분위기 되면 소주 따라 같이 마시고 그 다음날 고생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똑같이 잘 어울려 놀았죠.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하라카면 뭐, 한 번씩 흘러간 노래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남니다.(웃음)

■ 구술자 주요이력

1946. 대구 출생

1964. 경북고등학교 졸업

196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0.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

1983. 대구지방법원 판사

198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지원장

1987. - 1991.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2. - 1993.0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0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 변호사 개업(대구)

변호사서정석법률사무소 변호사(2012년 현재)

2005.02 - 2007.01 제47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노무현 대통령과 제17회 사법시험 동기로 사법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냈다. 동기들 가운데 노 대통령과 46년생 동갑이라는 인연으로 절친하게 지냈다. 1980년대 대구에서 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에 고등법원이 없어 대구고법을 오가던 노무현 변호사와 자주 만났다. 1996년 개업 이후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임 시기 및 퇴임 후에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청와대, 봉하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